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13:9-12
2025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여호와의 날

<주여 도우소서>

성탄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성탄 소식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성탄은 구원의 날이면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만큼 분명하게 또 다른 날인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은 심판의 날이요 통곡의 날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천사들은 성탄뿐 아니라 재림도 예고하였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마 25:31-33).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 25:34). 그러나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이 구분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지, 왼편에 서게 될지 지금 우리 자신을 엄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1.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분, 재림의 날에 주님의 왼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 7:19). 설령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도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일삼았다면 찍혀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이 말씀은 신앙의 외형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심판의 기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날과 통곡의 날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사

13:6).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사 13:9). 이 분노는 죄인과 악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죄인들을 멸절시키고 악인들을 불사릅니다. 시편 기자도 종국에는 죄인과 악인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시 104:35).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의 죄와 세상의 악을 벌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낫출 것이며”(사 13:11).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으시고 강포한 자, 포학한 자들의 거만을 낫추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돈으로 잘난 체 하는 자들과 힘으로 우쭐거리는 자들은 모두 낫아질 것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낫아지리라”(사 2:12).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한 자와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낫아질 뿐 아니라 지푸라기 같이 다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말 4:1).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용광로 불 같은 날에 비교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지푸라기 같이 남김없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송아지처럼 뛰어 다닐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또한 악인을 밟을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4:3). 지금까지 의인들을 밟았던 악인들이 여호와의 날에는 재와 같이 되어 의인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2. 소수의 구원받는 자

문제는 여호와의 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사 13:12). 얼마나 희귀한지 순금보다 희소합니다. 순금은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해야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 순금은 얼마나 희소한지 왕이나 신에게만 바쳤습니다. 당시 순금 산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오빌입니다. 오빌에서 나는 순금인 오빌의 금이 최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현데 여호와의 날에는 의인의 수가 그 희귀한 오빌의 금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수가 144,000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계 14:1). 이 수는 남자만의 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계 14:4). 물론 이 표현은 문자적 성별을 말한다기보다, 영적 순결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흄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5). 거짓말 뿐 아니라 아무런 흄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과 재림의 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천체가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사 13:10).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 24:29).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10 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8).

재림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7). 여러분, 노아 당시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므두셀라는 무려 969 세를 살았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 증가율이 0.8%입니다. 아마 당시 인구 증가율은 1%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 홍수는 아담으로부터 1,656 년 후에 발생합니다.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을 1%로 가정할 때, 아담과 하와 2 명이 1,656 년 후에는 몇 명이 될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Algebra II에서 풀어봤을 것입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지수함수에서 다룹니다. “초기 인구가 2 명일 때, 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1,656 년 후의 인구를 구하여라.” 답은 반올림하여 2,900 만명입니다.

2,900 만명 중 의인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노아의 가족 전체로 확대해도 의인은 열 명이 안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 6:12-13). 노아의 사촌들, 처가 식구들, 외가 식구들도 모두 악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80 억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대략 23 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허나 23 억 명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2,900 만 명 중 단 8 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비율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의인의 명단에 안전하게 들어있겠습니까?

3.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손의 맥이 다 풀리고 간답이 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사 13:7).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마 7:22).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인하십니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3).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천국의 문을 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맷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됩인고”(사 5:4).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 7: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며, 그 날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이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여호와의 날에 남는 사람은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바울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 8:1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편법이 당연시되는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순금 같은 믿음'이며, 주님 편에 서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